

가정 예배 모범

- 2020_06_28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6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갈보리산 위에 (새찬송가 150장)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고린도전서 15:50-58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때에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 잠자던 성도의 몸은 변화됩니다. 바로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전혀 다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있는 혈과 육은 죽음 가운데 썩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성도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부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2)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엇에 대한 승리를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성도가 이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사망이 쓰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사망과 죄는 인류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세상에 존재하며 우리를 고통가운데 있게 합니다. 사망의 이유는 죄의 값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 선고 받습니다. 인류로서는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채우시고,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 생명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